

2022년 제1차 전문위원회 화상회의 회의록 개요

회의일시	2022.01.27.(목) 14:00		진행방법	화상회의													
주관부서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회의기록	김지혜													
참석자	위원장 : 최윤희(5안건 미심의)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미경, 김혜미(1,2,3안건 불참) 윤종만, 최성남 < 위원정수 7명 중 6명 참석 >																
안 건	◆ 제1안 :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제4안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추진계획 심의(안) ◆ 제5안 :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 심의(안) ◆ 제6안 :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 제7안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심의(안)																
회의내용	◆ 제1안건-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13건																
	<table><tr><th colspan="4">내용 및 요청사항</th><th>결과</th></tr><tr><th>대상</th><th>심의사항</th><th>종류</th><th>위기사유</th><th rowspan="2">원안 가결</th></tr><tr><td>13</td><td>연장 13</td><td>생계 주거 의료</td><td> -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tr></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13	연장 13	생계 주거 의료	-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13	연장 13	생계 주거 의료	-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1-1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확인 받은 내용 아니면 작성 시 주의 요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1-1 정신건강 관련,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 지속될 시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함. -> 6회차 종료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된다면 지원이 지속될 수 없으니 상 담 및 일자리 알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1-3 자가로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함. -> 지속적으로 차량 처분 요청 중에 있지만 6개월 이후에도 차량 처분을 못할 시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심의를 하는 등 당시 상황 봐서 조치예정. <기타의견> - 연장지원 관련 설명 부탁 -> 3개월 지원 이후 총 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함. 오늘 안건에 올린 대 상자는 안건이 통과 되면 4,5,6월 연장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생계비 초과 시 4회차만 받고 끝날 수 있음.																

• **실행률 관련**

->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증액이 됐지만 유사한 긴급대책이 있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보니 중복의 경우 긴급복지로는 흡수가 안돼서 남는 경우가 있음. 20년 대비 2~3배가량 지원 대상자들도 많고 예산 집행률도 높은 상황임.

◆ 제2안건-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8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8	21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 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의견 없음.
------------------	--------

◆ 제3안건-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5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5	7	- 가족관계 해체 - 사실 이혼	

기타사항	3-4 노년부부 -> 장년부부로 수정 3-5 양극성정동장애 -> 모자가구로 수정
------	---

◆ 제4안건-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추진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 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 동별 현황에서 가구수가 9,140 / 가구원수 12,935 인데 연수구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궁금함. -> 3.4% 정도 됨. - 표 맨 밑에 '연수구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합계는 362임. 숫자가 안맞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함. -> 시설수급자로 빠진 인원이 있음. 맞춤형 기초 생계가 살아있어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합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고 전산상 평균치임.
------------------	---

◆ 제5안건-2022년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 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 사업예산이 6% 증가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함.
-> 작년 코로나로 인해 일반시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그에 따라 자활사업 대비자들이 많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됨.
- 지난해 희망, 청년 키움 통장이 계획보다 많이 참여를 못한 점이 궁금하고 올해는 변동되는 진행 사항이 있는지 궁금함.
-> 작년에는 5개 통장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현재 4개의 계좌로 줄이고 있고 신규 사업을 받으면서 5개 통장 사업이 3년 동안 적금을 부어야 해서 현재 9개 사업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래서 5개 통장이 4개 통장에 나중에 포함될 예정. 현재는 유지기간 때문에 9개로 운영 중.
-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함.
-> 정비 할 것임.
- 다른 구에서 하는 자활지원사업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있어서 실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수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음. 작년에는 계속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업이 지속됐던 건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함.
-> 코로나로 인해 가끔 무급 휴가를 주기도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환자 발생이 없었고 그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었음.
- 자활성공률 탈수급률이 52% 라는 건지 궁금함.
-> 자활수급자 탈수급률의 경우 국정평가-군·구 평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다른 구보다 높게 나왔음. 현재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취업은 모든 구가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역량 키우기 어려움. 취·창업률은 모든 구가 달성이 어려웠을 것임. 자활에서 가장 중요한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 생계급여가 아닌 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참여자 많고 생계급여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게 근로소득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자활급여로 제공을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 탈수급률이 우수하게 나온 편이고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
- 시에서 가장 높은 것은 칭찬드림. 그런데 탈수급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나와서 자활에 성공한 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꼭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음.
-> 탈수급이라고 하면 취·창업을 통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거라고 이해하는데 복지쪽에서는 이분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수급이 됐다는 뜻임. 취·창업도 있지만 자활급여도 포함할 수 있음.
- 애쓰셨음. 탈수급이라는 용어에 인플레가 있음.
-> 자활 자체가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취·창업률을 높이는 건데 올해 자활참여자분들을 취·창업 시키는 게 힘들었다고 함. 자활지원팀에서는 취·창업은 더 상향된 목표고 탈수급이 더 목적인다고 볼 수 있음.
- 민관이 함께 협력하셔서 멋진 성과를 만드신 것 같아 감사드림. 우리 연수구지역자활센터에서의 사업내용 중에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연수구의 롤모델 삼을 사업이 있는지 궁금함.
-> 자활 참여자 대상으로 하는 건 기금을 통해 심리·정서 부분까지 지원하

고 있고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커피 찌꺼기를 사용한 재사용사업임. 보건복지부에서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포상 받았고 방송에서 취재 요청음. 21년 시작 사업 중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운영 중. 아이스팩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보니 민간에서 잘 안 하려는 것을 폐 자원들 활용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배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

◆ 제6안전-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2022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우리가 만드는 연수복지마을' 공모사업	원안 가결
사업기간 2022.2월 ~ 11월	
사업내용 공모를 통해 동별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 지원	
심의요구사업비 13,082천원(구 연합모금)	

☞ 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 사업들이 전부 유사한 사업들이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음. 작년과도 동일하고 계속 그냥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선정해서 건강음료 드리고 안부전화 하겠다는 것이 주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전과 다르게 진행하기 여건이 어려운 건지 궁금함. -> 동별로 3~10개 정도 사업을 마을복지계획으로 수립을 하였고 이번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건강음료지원과 협의체 위원들이 안부를 확인하는 6건이 확인이 됨. 각 동에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했을 때 안부 확인만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사업이 마을복지계획 사업에는 들어가 있음. 하지만 건강음료 등의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이걸 중점으로 신청을 한 것 같음. • 송도 4동의 경우 딱 4세대에만 지원을 하고 다른 곳은 10세대 동춘3동도 대학생 자녀가 있는 2세대 지원 이라는 것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지 궁금함. -> 지원되는 세대수가 적은 동은 세대 지원한 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당부했음. 그리고 작년도에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성과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드렸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음. 거기 책 보면 2022년 각동 사업이 나와 있으니 그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음. • 자부담비율이 10%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함. -> 최소 자부담비율 10% 임. • 동보장협의체에서 올린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음. 1. 여전히 이런 사업들에 대한 주민 욕구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점.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지원분과 등을 통해 지원을 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아직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동보장협의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올해도 안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동춘3동은 저소득 주민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고심이 많았을까 싶음. 그 고심 끝에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자.'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음. 인구수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적다고

해도 2명은 너무 적은 것 같음. 저소득 주민이 적은 동에도 마을복지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 다른 주민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함. 저소득층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결국은 고독사를 방지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음. 그러면 지금쯤이면 고독사가 정말 방지가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우리가 연수구에 고독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 이것을 동에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협의체에서 프로그램 공고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듦.
- 각 동마다 고독사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 연수구에서 정책을 만들어 동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어떤지?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복지계획 공모사업 들어온 것 보면 건강음료, 노트북 등 주고 끝나는 사업이라 고민을 했음.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 및 코로나로 인한 고독사 증가로 인하여 건강음료 사업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공모에 많이 올 수밖에 없었음. 동춘3동의 경우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달을 했음. 그리고 동에서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복지관에 이천만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고 통합 돌봄으로 과에서 천오백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임.

-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확대해서 동차원이 아니라 연수구 차원으로 사업을 자리매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86p. 옥련2동이 총 사업비가 이천사백만원임. 여기에 10%면 이십사만원인데 이십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음.

-> 최소 부담기준은 작년과 올해 동일하고 이걸 자부담이 말씀하신대로 이십사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할 예정임.

- 87p. 전체적으로 추진률 10% 초과 달성. 동춘1동만 80%인데 사유가 궁금함.

-> 명절 때 담당공무원이 가정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복지 대상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100% 달성하지 못함.

- 송도5동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유가 궁금함.

-> 송도5동은 후원금이 3월부터 시작되어 동연합모금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원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캠페인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 신청하지 않음.

- 어느 특정 동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대상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전화를 하는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IOT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좋은 의견 감사드림. 의견 IOT 기반에 의거해서 독거노인들 관찰할 수 있는 기계 도입이 중요.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00세대 정도 안심 LED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함.

- 세대 수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함.
- 공모한 걸 갖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달성하기 쉬운 사업이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정비를 했는지 궁금함.

->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마을복지계획이 동협의체가 주축이 되긴 했

지만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현안에서 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세세한 부분을 수정하긴 어려움이 있었음.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구에서는 별도 수정하지 않을 계획임. 그리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민들과 마을복지지원분과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마을복지지원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갈 예정임.

• **그럼 여기에서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함.**

-> 마을복지 계획을 세운 것에 있어서는 마을주민들이 세운거기 때문에 가구 수를 늘리는 부분들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아예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음.

• **다소 부족해보이더라도 각 동에서 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준비하신 사업이기에 부족하더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함.**

• **마을복지계획 안을 짜면 동에서 투표 등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업이 올라오는 것인데 계속 같은 패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구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의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음. 하지만 이것과는 다른 색다른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음. 동보장협의체 위원과 동 팀장님들과 같이.**

• **고독사라던지 외로움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함. 영국같은 경우엔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될 정도로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신·신체·사회적 비용 때문에 중앙부서에 부처를 둘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 이런 인식을 갖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일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들었음. 갈수록 지역사회 이야기를 해마다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왕래가 부족하고 특히 저소득층은 더 취약해지는 부분에서 오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 있는데 옥련2동 '행복나눔 집들이사업'의 경우 맞춤형 건강상담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관련해서 세부적 내용 궁금함.

-> 전입자와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에 방문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추가적 연계하는 서비스임.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 관리는 동마다 건강관리 간호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 인력을 사용하는 것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파견)

• **예전에는 '고독사'하면 1인가구도 극소수였기 때문에 노인 가구를 중점으로 생각 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임.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가는 고민인데 연수구에서 고민할 수 있게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음. 위원분들께서 다음 회의에 관련 내용의 사업을 제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음.**

◆ 제7안건-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사회복지법인 셀트리온복지재단 외부이사 추천 심의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셀트리온 복지재단 • 목적사업 : 소외계층 지원사업, 사회복지 및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 • 요청사항 : 사회복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 및 지식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이해도가 높고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	가결

☞ 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 외부이사 임기 만료된 김상유 이사의 경우 연임 신청을 했는데 연임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 -> 명시 되어 있는 횟수는 없음. 하지만 이전 회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외부이사의 경우 투명성, 감시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임을 지양해왔음. • 외부이사의 성격자체가 법인에 외부이사 감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연임을 지양했다는 의견 주셨음. 그러면 저희가 받은 이 추천후보자 명단이 8인에서 9인이 된 이유가 궁금함 -> 회의자료 배부 이후에 연임 의사를 확인하여 김상유 이사가 추가된 사항임. • 내용 감안하셔서 어떻게 선임할지 논의 바람. • 1순위로 사회복지 일반을 희망하신 후보자 분들 중심으로 추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음. • 연임 여부를 어떻게 할지 의논 필요함. ->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현재 조례상 연임을 제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명성.객관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임 보다는 새로운 이사 위촉이 좋을 것 같음.
---------------	--

추천후보	황성주	김구일	최윤봉
예비 추천후보	1. 김석겸	2. 정미경	3. 김성신

회의사진	
공지사항	◆ 2022년 제2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예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